# ‘법화 80년 진리의 빛, 미래 100년 희망의 길’




대한불교법화종 80주년 삽화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③ 관효 스님, 종단 미래 밝히다
④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께 듣다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세속의 먼지에 물들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하얀 연꽃처럼, 참된 진리는 모진 시련의 늪에서도 기어코 찬란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불기 2570(2026)년,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80주년이라는 장엄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물질만능주의의 탁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라는 ‘법화(法華)의 선언’은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가슴 벅찬 구원의 이정표로 다가온다.

### 900년 세월 이어온 사상적 근간

오늘날 대한불교법화종의 뿌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아득히 먼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천태 교학과 법화 사상은 이미 신라 시대부터 그 맹아를 틔웠으며, 고려 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이르러 비로소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으로 창종되며 사상적 융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혹했다. 조선조에 들어서며 국가적 차원의 의도적인 억불정책(抑佛政策)이 시행되었고, 급기야 승려들은 천민으로 격하되는 참담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뒤이어 들이닥친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불교를 철저히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는 뼈아픈 수난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은 탄압으로 꺾이지 않는 법이다. 기나긴 질곡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그해 12월, ‘대승불교법화회’가 결성되며 천태법화계 최초의 조직적인 종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승불교법화회의 출범은 단순한 신앙 단체의 결성을 넘어, 일제강점기 동안 파고들었던 일본 불교 종파로부터 벗어나 천태·법화 사상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음을 상징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해방 정국 속에서 최초의 종문은 지도층 간의 이념적 차이와 노선 갈등으로 인해 분파를 거듭했다. 대승불교법화회라는 1문(門)에서 시작된 물결은 2파(派)로 갈라지고, 다시 3회(會)로 쪼개졌으며, 종국에는 오늘날 천태법화 사상의 정통성을 주창하는 4종(宗)으로 분종되는 험난한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다.

### 자비요람 세운 법화스승, 혜일 정각 대종사

분열과 혼돈이 점철되던 그 치열한 초창기, 끝까지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내며 법화의 정통성을 수호한 선각자가 있었다. 바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주, 혜일 정각(慧一 正覺) 대종사다. 1904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스님은 중생 구제를 향한 원력으로 불문에 귀의했다. 해방 이후 수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법화 단체의 이합집산 속에서, 혜일 스님은 유일한 여성 지도자로서 분연히 일어나 독자적인 종단의 기틀을 다진 ‘법화계의 여걸’이자 ‘스승’이었다. 1946년 5월 10일, 혜일 스님은 서울 삼각산 기슭 무량사(無量寺)에서 고려 대각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천태종의 진정한 법맥 계승을 천명하며 ‘대한불교법화종’ 중창을 선포했다. 1956년에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모임을 규합해 무량사를 본부로 ‘대한불교법화종’을 공식 창설하기에 이른다.

초대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막대한 사재를 털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종단 부서를 정비하는 등 교세 확장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 결과, 창종 31년 만에 1천여 개의 사암과 100여 만 명의 교도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대종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혜일 스님은 천태교관의 오시팔교설(五時八教說)과 사종삼매(四種三昧)를 교학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구원실성의 여래본존을 절대적으로 의빙하는 종체를 완성했다. 일평생 드러내지 않는 하심(下心)으로 자비의 법력을 나투었던 스님은 1982년 열반에 들며 11과의 영롱한 사리를 남겨 그 수행의 깊이를 묵언으로 증명했다.

**해방 후 1946년 중창, 발걸음**
**1000여 사찰, 100만 교도 위상**
**한국불교계 주요종단 자리매김**

**수년간 내홍딛고 종단 안정화**
**13개교구 정립, 미래비전 수립**
**대중교화 새 희망의 길 비추다**

### 一佛乘 대선언, 〈묘법연화경〉 가르침 전하다

‘대한불교법화종’의 굳건한 토대인 소의경전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대승불교권 전체를 통틀어 ‘경중왕(經中王)’으로 칭송받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법화경〉의 핵심적인 철학은 ‘일불승(一佛乘)’ 사상으로 이전까지 소승적 수행의 목표였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이라는 세 가지 수레(三乘)를 모두 하나로 모아, 결국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는 일불승으로 귀결시키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드러낸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유일하고도 거대한 이유(一大事因緣)는, 뭇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고, 이를 깨닫게 하여 진리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개시오입(開示悟入)’에 있다고 웅변한다.

대한불교법화종은 더나아가 이 숭고한 경전의 사상을 한반도 토양에 맞게 꽃피운 신라 원효대사의 사상을 깊이 체화하고 있다.

원효대사는 일체 중생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일승이(理), 일승교(教), 일승인(人), 일승과(果)의 네 가지 구조로 독창적이고 명확하게 체계화했다. 원효가 신라 민초들에게 전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긍정의 철학은, 오늘날 대한불교법화종이 중생 구제의 최일선에서 펼치는 대중불교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대한불교법화종은 실상(實相)의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과감히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본존인 석가모니불과 더불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쉽게 염불하도록 이끌고 있다. 살아 생전 그대로 부처를 이루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기쁨을 설파하고 있다.

### 시련넘은 제2도약, 미래 100년 희망

지난 80년 한 종문에서 갈라져 나와 방대한 교세를 이루기까지 대한불교법화종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재 대한불교법화종은 전국적으로 13개 지방 교구와 약 1000여 개의 사암을 거느린 방대한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종단 내부 갈등은, 교단 발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신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리의 법맥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매화가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듯, 법화종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혼란의 마침표를 찍고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과거 혼란기에 부득이하게 폐쇄되었던 제주교구를 최근 성공적으로 복원해 내며 대내외적인 화합과 종단 정상화의 찬란한 결실을 증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 불교계 전체에서 대한불교법화종의 위상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다.

본래 대한불교법화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연합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출범 당시 초기 등록 종단으로, 초창기부터 역사적 정통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종단이다. 한때 2위였던 의전 서열이 내부 진통으로 인해 2020년경 29위까지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내홍을 딛고 안정화 후 2025년 4월 종단협 이사회에서 28개 회원 종단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상임이사 종단’ 위상을 공식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대한불교법화종이 과거 영광을 되찾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대표 종단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다시금 굳건히 세웠음을 의미하는 쾌거다.

### 한국불교 대표종단 큰 걸음 시작

대한불교법화종이 지난 80년간 쉼 없이 외쳐온 일불승(一佛乘)의 진리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 억압과 분열의 역사를 넘어선 종단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사바세계를 정화하는 처염상정의 하얀 연꽃과 다름없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2026년, 대한불교법화종은 다시 한번 세상에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 삼승을 하나로 아우르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화합 정신은,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의 상처를 보듬는 묘약이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 100년, 대한불교법화종이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고단한 인류의 삶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장 찬란한 희망의 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

